

[발표 2]

한국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의 근거중심 실천 적용 사례분석 - S병원 호스피스팀 사례를 중심으로 -

정윤경¹⁾, 채수진²⁾(연세대 박사과정)

I. 서론

사회복지실천에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선택하는 방법에는 현장 경험, 기존의 이론들, 동료의 조언, 기관의 지침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전통적인 사회복지실천의 접근방법의 특징은 개입에 있어서 사회복지사 개인의 임상적 경험을 중시하고 이론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 전통적인 사회복지교육과 상식을 실천방법으로 받아들이며 지식의 습득에 있어서 비판적인 시각의 중요성이 간과되기 쉽다는 것이다. 이에 기존의 실천방법에서 보다 과학적인 근거(evidence)를 바탕으로 한 개입을 통하여 내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하는 사회복지실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근거중심실천(EBP: Evidence Based Practice)이 대두되고 있다. 근거중심의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근거중심실천은 사회복지계에서는 1990년 후반에 구미의 개별연구자들의 중심이 되어 근거중심실천의 개념을 소개한 이후 사회복지임상실천과 정책 과정에 근거중심실천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는 역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Bilson, 2004; Gambrill, 2003, 2006). 우리나라에서도 21세기에 들어선 이후 간호학과와 의학계를 중심으로 근거중심실천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있으나 사회복지계에서는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실천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계보다 빨리 근거중심실천이 도입되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되는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 개입사례를 살펴보고 근거중심적 실천과의 비교검토를 시도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의 근거중심실천 적용 가능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추후 한국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근거중심실천을 적용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사례의 대상자는 서울에 소재한 대형 종합병원 사회사업실 호스피스팀 의료사회복지사로

1)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

2)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

서 편의추출 방법에 의해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조사대상자와의 비구조화된 질문을 이용한 심층 면접과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오류를 점검하기 위해 조사대상자가 직접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2.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Gibbs가 제시한 근거중심실천 7단계 과정을 기초로 하여 각 단계에서의 연구사례 개입과정 및 실태와 정도를 검토하였다. 그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각 단계에서 조사대상 사회복지사의 개입과정 기술하면서 근거중심적 실천 요소들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둘째, 본 사례에 대하여 근거중심적 실천에 입각하여 실시하였을 때의 실시 과정을 제시하였다.

Ⅲ. 결과분석

<사례> S병원 호스피스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대장암을 앓고 있는 57세의 가정호스피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미술요법 개입을 계획하였다.

본 사례를 통해 현재 사회복지실천에서 얼마나 근거중심실천의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그 한계와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동시에 본 사례를 근거중심실천의 접근방법으로 제시도해 봄으로써 근거중심실천의 이해를 돕고 실제적인 접근성을 예측해보도록 하자.

1. 1단계: 근거찾기의 경험과 동기(motivation)

본 연구에서는 1단계에서 제시하는 동기를 근거(evidence)찾기에 대한 기존경험과 중요도, 그리고 중요한 이유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해 보았다.

사례의 사회복지사는 근거 찾기 경험에 대해 문헌고찰, 기존 다른 프로그램 참조, 전문가 지식 등을 이용하여 근거를 찾고 있으며 그 중요도에 있어서 관련연구의 문헌고찰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응답하여서 근거찾기의 방법론적 접근과 중요도에 있어서는 동기화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이유에 있어서는 근거중심실천의 목적인 “내담자의 권리”와 “전문가로서의 능력강화”의 측면보다는 “과학적 결과물에 대한 사회적 욕구 충족”의 측면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본 사례의 사회복지사는 근거의 중요성을 개입의 윤리성과 효과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내담자의 권리보장과 전문가로서의 능력강화가 실천가의 개입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 획득을 가능케 하는 기본 전제라고 볼 때, 근거중심실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동기화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성과근거(outcome evidence) 검색에 대한 어려움으로는, 문헌량의 절대 부족과 체계적 검색과정의 한계, 그리고 근거의 실제 적용가능성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이는 근거중심의학(Evidence based Medicine)에서 축적되어 있는 성과근거 중심의 방대한 연구량과 안정화된 검색시스템과 비교할 때, 매우 절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근거중심의학에서 제외되고 있는 1단계가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체계적인 질문을 통한 문제의 진단과 개입전략 선택

(1) 개입방법과 개입목적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선택

사례에서 사회복지사는 핵심문제를 “자아존중감 향상”으로 두고 있다. 다양한 호스피스 개입 중 “자아존중감”을 선택이유에 대해, 호스피스 환자들의 자아상을 긍정적으로 변화함으로써 삶의 소중함을 알고 마지막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응답하였다. 개입방법 선택에 있어서 “미술요법”을 시행한 것은 사회복지사의 개입방법에 대한 선호도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임상적 질문 구성

근거중심실천에서는 개입 이전에 명확하게 규정지을 수 있고 설명 가능한 임상적 질문을 구성하는 것이 근거 찾기의 실제적인 첫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사회복지사의 능력이다. 그러나 본 사례의 경우 사회복지사는 개입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질문에 대해 적절히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구조화된 질문구성에 대한 경험 역시 부재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화되고 체계적인 질문은 사회복지사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를 질문으로 변환하고 질문의 해답을 줄 수 있는 즉, 자신의 개입의 유익성과 효과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근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

3. 구체적 근거 찾기

사례의 사회복지사는 기술적으로는 근거중심실천에서 소개하는 문헌검색과정에 매우 근접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호스피스 환자에 대한 미술요법 개입이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효과성을 보이는 지에 대해 다양한 검색용어를 통해 근거를 찾으려고 시도하였고, 5가지의 근거를 선택하고 있다.

4. 근거에 대한 비판적 평가

Sackett의 논문평가 지침으로 살펴볼 때, 세 가지는 제목에서 내담자의 고유한 특성 즉, 호스피스라는 신체적/심리적/환경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는 자아존중감 효과성 평가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질 높은 근거로 선택하는데 한계를 보인다. 이는 사례의 사회복지사가 1,2단계에서 근거중심실천에 대한 통합적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서 그 한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기술적 접근이 시도되었음에도 찾을 수 없었던 검색결과들을 살펴볼 때,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원인으로 한국사회복지실천 영역에서 검색 가능한 성과검증연구의 빈약함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분석은 실증적으로도 검증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정보의 양이 많은 영어권 검색문헌(EBSCOhost electronic Journals service을 (<http://ejournals.ebsco.com>))을 통해 사례의 근거찾기를 시도하였을 때, 내담자 특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미술요법을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의 결과를 보여주는 근거들을 찾을 수 있었다

5. 근거선택과 실행

(1) 근거선택

사례에서 사회복지사는 3번째 논문을 그 근거로 선택하였다. 근거를 선택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전문성과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내담자의 표현력을 증가시키고 자아존중감을 향상할 수 있다고 검증된 미술요법을 선택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전단계인 근거 찾기에서 선택된 근거들이 이미 적합한 근거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선택된 근거는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영어권 검색창을 이용하여 찾아진 근거 중에서는 대상자와 개입방법, 개입목적 및 효과성들이 일치하는 아래의 논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Participation in a creative arts project can foster hope in a hospice day centre, Cynthia CEK Kennett , Source Palliative Medicine, Volume 14, Number 5, 2000*).

2) 내담자의 권리와 선택권

근거중심실천 실행의 개입에 있어서 내담자에게 개입방법에 대한 설명과 동의는 매우 중요하다. 본 사례의 경우,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여부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나, 제공하고자 하는 개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나 동의과정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접근은 근거중심실천에서 볼 때, 내담자의 개입에 대한 선택권과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개입의 진행

사회복지사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비정기적으로 미술요법을 시행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만다라 그리기와 손짜기 작업이 계획되었다. 1차적으로 손짜기 작업이 계획되었으며, 내담자가 1회 요법을 마치고 난 후 갑작스럽게 사망함으로써 개입은 종결되었다.

6. 실천평가

본 사례의 사회복지사는 개입의 효과성에 대해 환자와 가족,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의견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였는데, 환자에게는 숫자통증등급(NRS), 가족에게는 미술요법 후 이에 대한 가족들의 의견을 물어보았으며, 사회복지사의 평가는 스스로가 개입과정과 평가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평가도구를 살펴보면, 제시되고 있는 이 세 가지 측정 모두 개입의 목적이었던 환자의 자아존중감 변화를 측정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 이것은 사실상 근거 찾기 단계에서 적절한 근거를 찾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 새로운 근거로 제시되었던 논문에서는 미술요법의 활동에 대한 효과성 측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측정도구- interview, 구조화된 설문지, 또는 가족이나 다른 팀원들을 통한 내담자의 평가 등-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올바른 근거 찾기를 진행하면, 개입에 대한 진행과 평가와 관련된 정보도 함께 획득할 수 있다.

7. 교육과 보급

7번째 단계인 교육과 보급은, 근거 찾기의 가장 중요한 올바른 근거선택을 위해 필수적인 풍부하고 질 높은 data base의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사례에서 사회복지사는 개입의 결과를 “과정 기록지(process recoding)”를 통한 기관 내 보고와 기관 내 동료와 다른 전문가들과 사례 분석(case review)을 통해 공유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성과근거로서는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평가방법 구조화의 어려움, 과도한 업무량과 시간부족 등을 제시하였다. 근거 찾기과 관련된 교육경험 역시 부재하였다. 그러나 올바른 근거찾기를 위한 교육의 욕구는 높으며,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을 다른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공유한다고 응답하여서 근거중심실천의 한국사회 적용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사례를 통하여 사회복지현장에서 근거중심적 실천의 실현성을 살펴본 결과 현재 한국 사회복지현장에서 부분적으로 근거중심실천의 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근거중심실천에 대한 정보와 교육은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실천과정 7단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사는 1단계에서 동기화가 일부 되어 있으나 내담자의 선택권과 권리가 간과되고 있어서 이후 단계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근거찾기와 실행의 과정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부재가 적절한 근거찾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으며 그로 인해 실행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근거중심실천의 중요성과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서 근거중심실천의 1단계와 7단계의 강화를 통해 사회복지실천에서 근거중심실천을 가능케 하는 기본 단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이미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는 근거중심실천에 대한 동기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거중심실천 적용에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근거중심실천을 적용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통한 근거중심실천의 교육이 필요하다. 근거중심실천 방법은 특히 아직 현장 경험이 부족한 사회복지사나 연구 경험이 없는 분야에서 사회복지사가 개입할 때 좀 더 책임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내담자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로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에서 근거중심실천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성과 연구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근거중심실천은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신의 연구결과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축적이 필수적이며 데이터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기존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근거중심실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내담자에 대한 개입을 한 결과들은 비공식적인 보급에 그치는 경향이 있어 방대한 개입의 결과들이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는 사회복지사들이 근거중심적 개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데이터의 부족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는다. 기존 사회복지사들이 근거중심실천 방법을 습득한다면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